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

## 국제금융시장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 ..... 1

국제금융시장 ..... 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 7

#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정 환 수 (hsjung@kdb.co.kr)

- ◆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
- ◆ '22.1월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이후 사업자 간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 범위 확장 및 보안 강화 등의 정책적 보완 예정

## □ 데이터 주도 경제의 흐름에 맞춰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'마이데이터\*' 도입

- \* 흩어져있던 자신의 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서비스
- 빅데이터, Io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산업\*이 성장하면서, 개인데이터 관리와 활용 권한을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보장하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필요성 대두
  -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'20년 19조원으로, '26년까지 연평균 11.3% 성장하여 36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\*\*
  - \* 데이터의 생산, 수집, 처리, 분석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·제공하는 산업
  - \*\* 과학기술정보통신부('21.3), "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"
- '20.8월 데이터 3법 개정\*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'본인신용정보관리업' 도입
  - \*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위해 개정 시행
  - 마이데이터를 통해 은행·카드·통신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하고, 자신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
  - 사업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 상품의 파악 및 제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활용

###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 정보

업 권	제 공 정 보
은 행	예·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, 대출잔액·금리 및 상환정보 등
보 험	주계약·특약사항, 보험료납입내역, 약관대출 잔액·금리 등
금융투자	주식 매입금액·보유수량·평가금액, 펀드 투자원금·잔액 등
여신전문금융	카드결제내역, 청구금액, 포인트 현황,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
전자금융	선불충전금 잔액·결제내역, 주문내역(13개 범주화) 등
통 신	통신료 납부·청구내역,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
공 공	국제·관세·지방세 납세증명, 국민·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

자료 : 금융위원회('21.11.29) "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 및 향후계획"

□ **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시작 이후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중**

- '21.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으며 '22.1월부터 전면 시행 중
  - 마이데이터는 '22.2월 기준 1,840만명(중복집계,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)이 가입 중이며, 125억건의 데이터가 서비스에 활용\*
    - \* 4차산업혁명위원회('22.3), "마이데이터 토론회 보도자료"
- '22.1월 33개 사업자\*로 서비스가 출범하였으며, 고객 선점을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이 진행 중
  - \* 은행 10개, 핀테크·IT 10개, 카드 6개, 금융투자 4개, 저축은행 1개, 상호금융 1개, 신용평가 1개

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

회사	서비스 내용
신한은행	마이데이터 브랜드인 '머니버스(Moneyverse)'를 출시하여 여러 회사에 분산되어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산·재무 분석, 소비·지출 관리, 개인화 상품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
하나은행	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공동 브랜드 '하나 합'을 오픈하여 투자 노하우, 은퇴준비, 배당투자 등 손님별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
KB국민은행	'KB마이데이터 서비스'를 오픈하고 '목표챌린지'를 통해 고객별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및 진단하여 고객에게 금융 목표를 제안하는 등 고객 참여형 콘텐츠 제공
신한카드	AI 종합 자산 큐레이션 서비스인 '신한 My리포트'를 출시하여 AI 기반의 고객분석 금융 소비생활 시나리오별 팁과 금융캘린더에 기반한 다양한 알림 피드 제공

자료 :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종합 재구성

□ **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 제공범위 확장 및 금융보안 강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\***

- \* 금융위원회('22.3), "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 보도자료"
- 소비자 편익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, 의료 등 비금융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를 확장하고,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마련과 보안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을 위한 법제 강화 논의 필요
-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케팅보다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

# 국제금융시장 3월 동향 및 4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천 경 원 (cheonkw@kdb.co.kr)  
 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3월 원/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상승, 4월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인한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서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
- ◆ **(금리)** 3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 및 공격적 긴축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크게 상승, 4월에도 금리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
- ◆ **(주가)** 3월 주요국 증시는 미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FOMC 이후 호전, 4월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

□ **(환율) 3월 원/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상승, 4월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인한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서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**

○ (글로벌 동향)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인덱스\*가 99.152을 기록('20.5월 이후 최고치)하는 등 달러화 강세장이 지속

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- 3월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,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달러인덱스가 '20.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
- 3월 중순 이후 FOMC 영향, 유가의 변동 등의 요인으로 달러인덱스는 등락을 보였으며 3월말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 소식에 하락 전환
- 3월 FOMC(15~16일)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, 높은 인플레이션과 양호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5bp의 금리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며 강세 압력이 일부 해소
- 3월말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, 중국 선전, 상해지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이에 따른 원유 수요감소 예상\* 등의 영향으로 강세 압력 완화

\* 브렌트유 가격 추이(달러 증가) : 89(2.1일) → 105(3.1일) → 128(3.8일) → 100(3.15일) → 115(3.22일) → 112(3.28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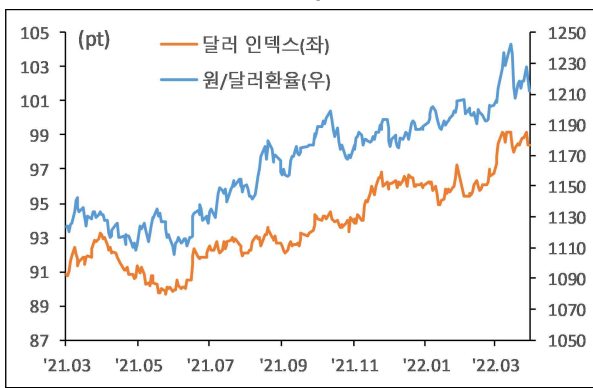
- 3월말 달러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\*, 전쟁 상황 지속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\*\*

\* 파월 연준의장 3.21일자 연설에서 다음번 FOMC(5월)에서 50bp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, 뉴욕연은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50bp인상 가능성을 시사

\*\*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(2.24) 이전 달러인덱스는 95~96수준에서 등락, 전쟁 이후 98~99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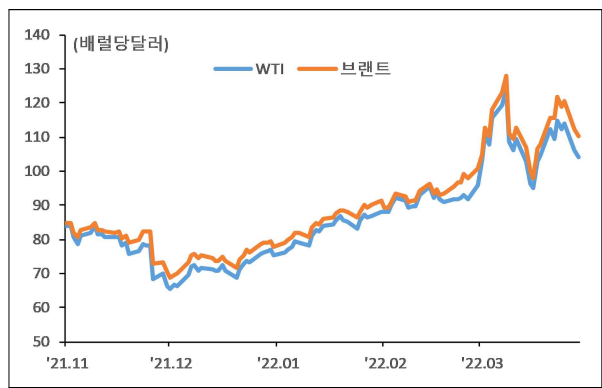
- (국내 동향) 원/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, FOMC에 대한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장중 1,244.5원(3.15)까지 상승('20.3월 이후 최고치)하였다가 3월 FOMC 이후 1,207.6(3.18)으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시현
    - 3월말 원/달러 환율은 1,210원 수준에서 등락 중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및 내국인의 해외주식 순매수세\*, 유가·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
- \* 3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(KOSPI)을 4.9조원 순매도(3.28일 누적기준, 연합인포맥스), 내국인은 해외주식을 17억달러 순매수(3.28일 누적기준, KSD증권정보포털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국제유가 변동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(전망) 4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인한 달러화 강세 환경 속에서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진전과 이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의해 하락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
  - 연준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불안, 유가·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쟁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달러화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
  -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약화되어 원/달러 환율의 최고점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계속되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전쟁발발 이전보다 높은 1,200~1,230원 수준에서 등락 전망

환율 추이

	'20년말	'21년말	'22.2월말	'22.3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086.3	1,188.8	1202.3	1212.1	+0.82%
달러 인덱스	89.927	96.141	96.767	98.353	+1.64%
달러/유로	1.2217	1.131	1.121	1.107	△1.25%
엔/달러	103.26	114.82	114.96	121.68	+5.85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3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 및 공격적 긴축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크게 상승, 4월에도 금리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

○ (동향) 3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高인플레이션 지속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금리 상승

-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러-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에도 불구하고, 3월 FOMC 결과\*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며 월말 2.4%대 까지 급등

\*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, '22년 추가 6번의 금리인상을 전망한 점도표 제시

·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\*은 '82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전월치를 넘어서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켰으며, 3월 FOMC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빅스텝 가능성 시사\*\* 등으로 채권투자 심리 악화

\* 2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: 전년동월비 7.9% 증가 (1월 CPI : 7.5%)

- \*\* 3.21일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발언
-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러-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월초 마이너스로 재진입하기도 했으나, ECB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\*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

\* ECB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는 동결했으나,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자산매입 프로그램(APP)을 통한 채권매입은 3분기에 조기 종료할 예정을 밝힘

-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 FOMC 및 국채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며 동조

○ (전망) 4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에 따라 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-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통화긴축 가속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며 시장금리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지정학적 리스크, 물가급등 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심리가 이어지며 장기금리 상승폭은 단기물 대비 제한될 전망

주요국 국채금리 추이

	'20년말	'21년말	'22.2월말	'22.3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0.9132	1.5101	1.8250	2.3380	+51.30bp
독일채 10y	-0.5690	-0.1770	0.1350	0.5480	+41.30bp
일본채 10y	0.0210	0.0710	0.1920	0.2200	+2.80bp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3월 주요국 증시는 미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FOMC 이후 호전, 4월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

- (동향) 3월 주요국 증시는 월초 러-우크라이나 사태 악화,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저조한 모습이었으나, 시장의 예상 범위내 금리인상을 결정한 미 FOMC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며 투자심리 호전
  - 미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월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미 연준이 FOMC에서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반등,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
  - 유로Stoxx50는 러-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월말 대비 보험수준에서 마감
  - Nikkei225 지수는 대체로 미 증시 움직임과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상승
- (전망) 4월 주요국 증시는 투자심리 회복세가 완만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러-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될 전망
  - 미 증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요 기업들에 대한 1분기 호실적 기대가 증가하며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
  - 한편,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유가변동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장기화는 증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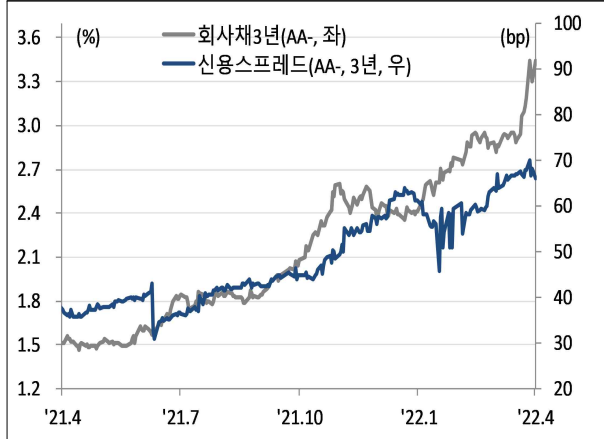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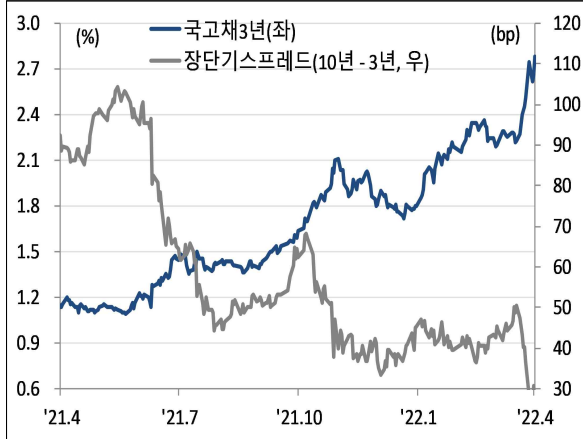
	'20년말	'21.12월말	'22.2월말	'22.3월말	전월대비
다우존스	30,606.48	36,338.30	33,892.60	34,678.35	+2.32%
유로 Stoxx 50	3,552.64	4,298.41	3,924.23	3,902.52	△0.55%
Nikkei 225	27,444.17	28,791.71	26,526.82	27,821.43	+4.88%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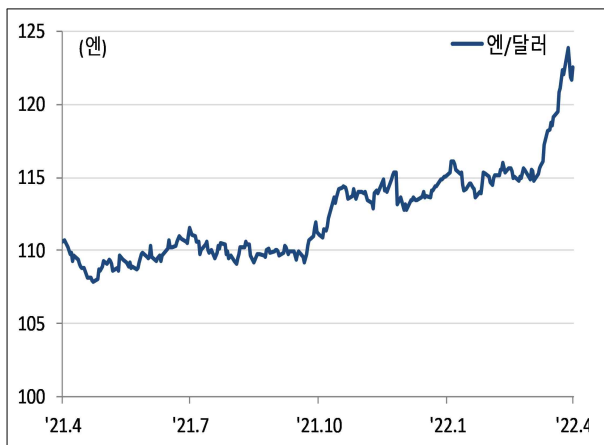
(담당자 : 환율 - 천경원, 금리·주가 - 장명화)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**금 리** 국고채3년 2.784% (27.9bp ↑), 신용스프레드 66.1bp (1.9bp ↓)



**환 율** 원/달러 1,215.5원 (3.3원 ↓), 엔/달러 122.53엔 (0.48엔 ↑)



**주 가** 코스피 2,739.85pt (0.36% ↑), 코스닥지수 940.57pt (0.63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71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